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초등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안전의식의 차이



201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김 선 화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초등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안전의식의 차이

지도교수 강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김 선 화

김선화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05월 27일



주 심 교육학박사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7
3. 용어의 정의	7
4. 연구의 제한점	9
II. 이론적 배경	10
1. 안전교육의 정의 및 목표	10
2. 학교안전교육	15
3. 초등학교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안전교육의 방향	18
4. 초등학교의 학년별 안전교육 목표	22
5.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28
6. 외국의 학교안전교육 사례	39
7. 선행연구 고찰	48
III. 연구의 방법	52
1. 연구 대상	52
2. 연구 절차	54
3. 조사 도구	55
4. 자료 처리 방법	56

IV. 연구 결과	58
1.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설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	58
2. 4개 영역의 안전의식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	73
3. 안전의식과 실천정도와의 관계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	80
V. 결론 및 논의	84
1. 결론	84
2. 논의 및 제언	86
참고문헌	89
부록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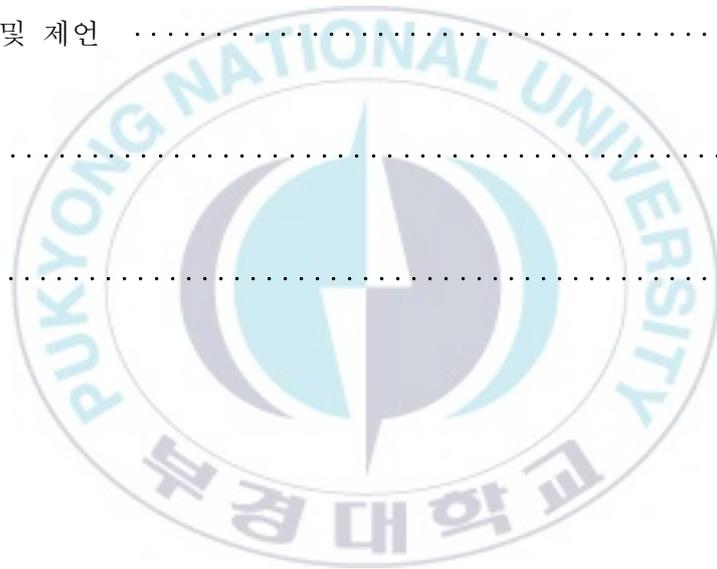


표 목 차

<표Ⅱ-1> 학생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령 현황	28
<표Ⅱ-2> 아동의 안전교육 실시 주기	29
<표Ⅱ-3> 안전교육 7대 표준안	30
<표Ⅱ-4>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33
<표Ⅱ-5> 초등학교 생활안전 교육 내용	34
<표Ⅱ-6>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 내용	35
<표Ⅱ-7> 초등학교 약물 사이버 중독 교육 내용	35
<표Ⅱ-8> 초등학교 폭력 및 신변안전 교육 내용	36
<표Ⅱ-9> 초등학교 재난 안전 교육 내용	37
<표Ⅱ-10> 초등학교 직업안전 교육 내용	38
<표Ⅱ-11> 초등학교 응급처치 교육 내용	38
<표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3
<표Ⅲ-2> 학교생활 특성	54
<표Ⅲ-3> 조사도구의 신뢰도	56
<표Ⅳ-1>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필요성의 인식 정도	58
<표Ⅳ-2>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횟수	59
<표Ⅳ-3> 부모님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가르침	61
<표Ⅳ-4>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신 교사	62
<표Ⅳ-5>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시간	63
<표Ⅳ-6> 학교에서 한 학기에 안전교육을 받은 횟수	65
<표Ⅳ-7> 1회 안전교육의 평균 시간	66

<표IV-8>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는 방법	67
<표IV-9>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후의 평가 방법	68
<표IV-10>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	70
<표IV-11> 안전교육 만족도에 답한 이유	71
<표IV-12>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이 실생활에 주는 도움 정도	72
<표IV-13> 성별, 학년에 따른 생활안전의 차이	74
<표IV-14> 성별, 학년에 따른 교통안전의 차이	75
<표IV-15> 성별, 학년에 따른 응급처치의 차이	76
<표IV-16> 성별, 학년에 따른 재난안전의 차이	78
<표IV-17> 성별, 학년에 따른 실천정도의 차이	79
<표IV-18> 성별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와 실천정도의 관계	81
<표IV-19> 학년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와 실천정도의 관계	83

Difference in Safety Awareness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s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on Hwa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safety awareness and to show the importance of school safety education so I surveyed difference of awareness of safety education of 4~6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safety awareness as well as the practice degree of safety awareness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Choose two elementary school where placed in Busan, surveyed of safety awareness to 4~6 grades then 467 substantial papers were selected.

paper analyzation implement SPSS/PC⁺ Win. 21.0, *t*-test and one-way ANOVA

Here is the result.

First, Almost there is no difference to pay attention in awareness of safety education at school according to gender Yet almost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rade.

Second, there is no difference to pay attention in safety awareness at life safety, traffic safety, first aid and disaster safety fields according to gender, Yet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rade. Result shows outcome that is 6 to 4 grades in sequence, It means the longer the length of safety education, the greater the safety awareness. In Safety awareness and practice degree,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sequential outcome that order is 6 to 4 grades, It means even high safety awareness not always lead to practice. Therefore, practice education is also needed too as well as safety education.

Third, in view of relation ship between safety awareness and practice degree, in principle both boys and girls has positive relationship, so there is only slight difference. However, in grade, there i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in order of 6-4-5 grade.

Based on this, I suggest some proposals for a follow-up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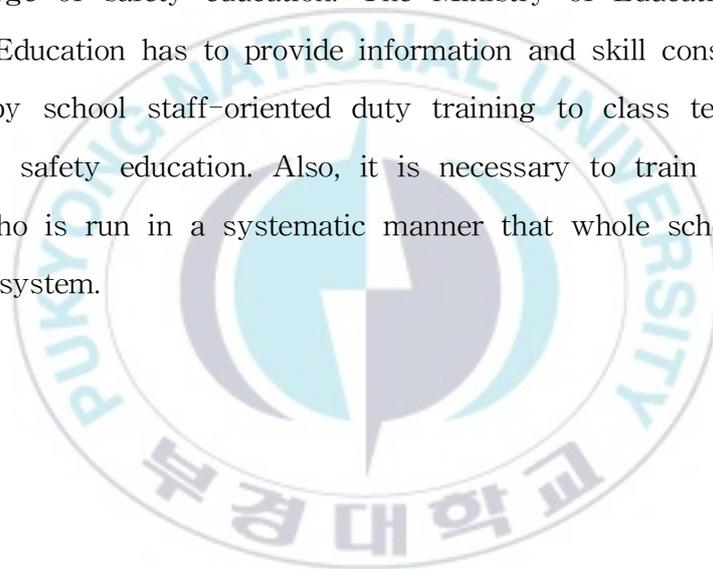
First, This study is based on basic safety education that implementing at school to find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s. Result of study, there is no difference in gender yet a slight difference in grade. To prove Strengthen of safety awareness influences on prevention and practice of safety accident, considering the examination method that split up groups into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led group, is worth too.

Second, Socially, by perception that importance of safety has going current, safety education is strengthen at school and difference in grade is signific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students' safety

awareness about prevention of violence, personal protection, prevention of cyber addiction and job safety fields that have not surveyed yet.

Third, Although have high sense of safety awareness, it can't be consonance with practice degre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of safety education program that emphasis on habituation to safety awareness formed by education leads to practice.

Fourth, Still at school, it has high proportion that a class teacher takes charge of safety edu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Office of Education has to provide information and skill consistently for teachers by school staff-oriented duty training to class teachers lead systematic safety educ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train professional teacher who is run in a systematic manner that whole school's safety education syste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해 물적·인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대 사회가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과거보다 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여러 종류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사건, 고양 종합터미널 용접 폭발 사건,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 서울 지하철 스크린 도어 수리 중 발생한 사망 사고 등은 장소와 피해자들만 달라졌을 뿐 그동안 보아온 사고들과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대형 사고로 인해 우리는 커다란 경제적·신체적 손실을 입거나 때로는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의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안전불감증’이다(양해섭, 2016; 이창희, 2010). ‘안전불감증’이란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는 증세로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은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과거 산업화 사회에서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니 안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서병재, 2001).

Heinrich(198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들

중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단지 2%에 불과하고, 사고의 88%는 사소한 부주의나 설마 하는 안일한 태도로 인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발생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나머지 10%에 해당되는 불안정한 환경에 의한 사고 역시 안전교육, 과학, 기술 및 안전재해법의 집행 등을 통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심은순, 2003).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대형 사고들은 1대 29대 300 법칙인 Heinrich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크고 작은 조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한 건의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이미 경미한 사고가 29회 발생하고, 이러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소한 조짐이 300회 정도 발생한다.(경향신문, 2014. 4. 22). Heinrich 법칙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소한 조짐이나 경미한 사고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러한 부주의나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수많은 대형 사고들이 안전의식의 부재에서 온다는 사회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안전의식에 대한 학교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김정희, 2015). 이에 정부에서도 2014년 11월에 학교안전교육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교육부, 2014)’을 발표했다. 이 중 학교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에는 학교 내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 위주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고 교사들을 안전교육의 준전문가로 육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채석기, 2015).

뿐만 아니라 2015년 2월에는 유·초·중·고 발달 단계별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것은 유·초·중·고에서 학생 참여형의 안전교

육으로 안전사고 예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을 연간 51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교육부, 2015). 또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 이내 15시간 이상, 교육활동 참여자는 연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건·체육 교사는 연간 4시간씩 이수해야 하고, 그 외 교직원은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교육부, 2016)

이처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목적은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이명선 외, 2013) 대부분의 사고는 불시에 일어나지만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 등에 의해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에 대한 유형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행동방법을 인지해야 한다(김선덕, 2000). 또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체득된 습관은 쉽사리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확고한 안전의식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심은순, 2003; 전재완, 2004).

아동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려면 학교가 안전교육을 하는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안전의식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석혜민, 2005). 초등학교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올바르게 습득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안전의식에 대해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고광진, 2007; 김유경, 2010; 김점태, 2010; 김준태, 2015; 김창모, 2016; 양해섭, 2016; 이석훈, 2011; 이효동, 2011; 이효준, 2016; 임대성, 2016; 장형규, 2014; 전진만, 2002). 이 연구들은 대부분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사고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산업재해의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의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평가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김유경, 2010; 김창모, 2016; 장짐, 2011; 홍석하, 2015).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안전의식의 실태를 파악한다면 안전의식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사고 감소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건설과 관련된 연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김영주, 2005; 김점태, 2010; 류효지, 2016; 이효동, 2011; 장경근, 2011; 전진만, 2002; 정성훈, 2012; 조재환, 2009).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연구가 다수라는 것은 정부나 건설사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사고의 발생이 많은 것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사망사고를 감소시키려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안전교육의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이효준, 2016, 장형규, 2014)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실험과

관련된 연구(김미연, 2009; 박성희, 2009; 이경훈, 2010; 이미연, 2009; 신선영, 2009; 최지현, 2009), 안전의식과 관련된 실천정도나 안전사고발생 실태와 관련된 연구(박대성, 2005; 박장권, 2010; 심은순, 2003; 임현주, 2005), 안전교육과 관련된 연구(김정희, 2016; 손오근, 2015; 이창희, 2010), 소방안전과 관련된 연구(강기선, 2013; 김현기, 2006; 정재선, 2010; 최영희, 2010), 체육수업과 관련된 연구(구자훈, 2009; 노광열, 2016), 교통안전과 관련된 연구(박재일, 2003), 식품위생 및 안전의식과 관련된 연구(손혜은, 2007; 정정화, 2009), 인터넷과 관련된 연구(김명숙, 2011)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의 범위를 초·중·고등학생으로 각각 나누어 연구한 것보다는 초·중학생이나 중·고등학생처럼 대상 범위가 넓은 연구들이 많았고,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또 과학실험이나 소방안전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과학실험실습 때 사고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고, 화재로 인한 사고는 피해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실천정도나 사고발생 실태와 관련된 연구가 많은 것은 내면화된 안전의식과 실천정도에 따라 사고의 발생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인 추측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김정희, 2016; 박대성, 2005; 심은순, 2003; 이은진, 2010; 임현주, 2005; 한현상, 손기상, 2011) 중에서 안전의식 및 실천정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안전의식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실천 정도는 안전의식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심은순, 2003; 임현주, 2005). 이는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습관화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학년 간 안전의식을 살펴본 연구 중 심은순(2003)은 6학년이 5학년보다 안전의식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학년이 낮을수록 안전교육 요구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김택희(2000)의 연구 결과와 동일했다. 김현기(2014)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경험한 사고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체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고발생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체 응답자 중 44.3%가 사고 원인을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학생들 스스로가 안전의식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남녀 간의 안전의식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안전의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학생이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박필남, 2003; 박상섭, 이창희, 2010; 심은순, 2003)).

이상의 연구처럼 안전교육이나 안전의식, 실천정도, 사고발생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박대성, 2005; 심은순, 2003; 임현주, 2005)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받은 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전 학년에서 배운 안전교육에 대한 이해가 다음 학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남녀 간의 차이는 어떠한지를 밝히는 연구는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안전교육의 기초자료를 얻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 4~6학년 학생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와 안전의식과 실천정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학년에 맞는 안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4~6학년 학생들의 안전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 4개 영역에 대한 안전의식의 차이와 안전의식과 실천정도의 관계에서의 차이를 성별과 학년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안전의식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안전의식과 실천정도의 관계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안전

안전이란 사고와 자연 재해와 같은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상태이다(이재남, 2003).

본 연구에서 안전이란 사고나 위험이 생길 염려가 없는 상태이며, 사고와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 안전의식

의식이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심적 현상의 총체로 개체가 현실에서 체험하는 모든 정신 작용과 그 내용을 포함하는 모든 경험 또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안전의식이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는 안전에 대한 인지도를 의미한다(임현주, 2005)

본 연구에서 안전의식이란 연구대상인 학생이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분야에 대해 그 동안 받은 교육 및 개인의 가치관을 통해 안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 안전교육

안전교육이란 교육의 수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선덕, 2000).

본 연구에서 안전교육이란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추어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라. 안전실천

안전실천은 연구 대상 학생이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사이버 중독, 직업안전, 응급처치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 범위는 부산 시내 일부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설문지로 조사함으로써 응답자에게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이 불가능한 설문지법의 한계를 지닌다.



Ⅱ 이론적 배경

1. 안전교육의 정의 및 목표

가. 안전교육의 정의

안전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원인이 없는 상태이거나 위험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뜻한다(두산백과사전, 1996). 이 외에도 안전이란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

플로리오(A.E Florio)는 “안전이란 위험의 가능성을 없애고, 사고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 행동의 차이에 따라서 일어난 상황 또는 상태이다.” 혹은 “위험의 가능성을 없애고 사고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환경의 설계에 따라서 일어난 상황 또는 상태이다.”라고 정의했다(최영일, 1998). 또 몰츠(Morz)는 “안전이란 사고의 예방과 개인적 피해 또는 사고로부터 오는 재산적 손실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정의했고, 마랜드(Marland)는 “안전이란 인간의 행동 수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건이나 상태 또는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고안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석혜민, 2005).

이렇게 다양한 정의들 속에서 안전에 대한 공통된 속성을 정리해 보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사고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이란 고통 또는 고통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없애 신체를 편안하게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현기, 2014).

안전과 마찬가지로 안전교육에 대한 정의들도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안전교육이란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 사고율을 낮추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즉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와 태도 및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석혜민 외, 2013). 또 안전교육은 개인의 제반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인간의 행동변화와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할 상황 또는 상태에서 인간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이재민, 2011)

이처럼 다양한 용어적 정의를 기초로 하여 안전교육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안전교육이란 교육의 수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선덕, 2000; 남상길, 2004).

안전교육의 다양한 내용들은 주변에 산재된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생활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위험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나. 안전교육의 목표

안전교육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정한 위험요소를 발견하는 능력과 안전지식을 기르고, 위험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며 사고의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또한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위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간의 행동 및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이다 (김신정, 김성희, 2009)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김선덕, 2000; 손오근, 2015; 전재완, 2004).

첫째,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의식을 내면화시키고 행동을 습관화시킨다. 여러 가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시키고, 이것을 토대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태도나 습관을 형성시켜 안전의식을 내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안전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한다. 규칙이나 질서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기능을 습득하는 것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 누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능력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상생활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예측해 항상 안전을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는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고 행동한다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학교, 가정, 사회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생명의 귀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전에 대한 지식과 행동능력을 습득하기 이전에 생명 존중의 정신을 확립하여 모든 생활에서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닥치더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사고란 예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과 사고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안전교육의 기본방향과 학습원리

안전교육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행동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요소이며 인간존중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러한 삶의 바탕이 되는 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려면 안전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습관화될 수 있도록 전 영역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임현주, 2005; 한국산업안전공

단, 2001).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생활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지식을 습득하고, 안전의 당위성을 느끼도록 체험형식의 교육을 실시하여 필요한 습관과 태도를 익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생활지도의 전 영역에 걸쳐 유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2015).

안전교육은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자료와 지도 방법을 선택해 어린이가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장성초 안전교육운영보고서, 2015). 이를 위해서 교사는 어린이의 경험과 발달 특성에 맞추어 안전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들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각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알맞은 교육활동 방법을 선택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교수매체를 선택해야 한다. 자료나 교수 매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고안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교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학습 원리는 다음과 같다(김민선, 2009; 남상길, 2004; 석혜민, 2005).

첫째, 안전교육을 위한 활동 내용과 자료는 어린이의 경험과 연관된 것으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어린이는 어떤 것보다 직접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둘째, 안전교육은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어린이 각자의 능력과 흥미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의 내용도 각자의 능력이나 흥미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이렇게 실시된 교육에서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안전교육은 어린이 스스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키고,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동기가 유발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 할지라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

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이 안전에 꼭 필요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집중 시간은 길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안전지식을 이해시키고 행동을 습관화시키려면 여러 번 되풀이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교육은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최영일 1998).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안전지식을 알려주거나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고 익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행동을 체득할 수 있다.

2. 학교안전교육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면 학생들은 불안감으로 인해 학습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를 성취할 수 없게 되어 학교 자체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일은 학습활동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김중복, 2007). 무엇보다 학교안전교육은 학생들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활동임을 명심하고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 실질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학교안전교육의 개념

안전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최고로 발달시키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안전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안전에 대한 태도와 습관을 육성시키는 교육이다. 안전교육은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단지 상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만이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극복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김창현, 2014).

인간은 누구나 안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익히고 안전 생활을 위한 태도 및 습관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1). 안전교육이란 교육과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어 개인 또는 집단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안전교육은 개인, 가정, 직장,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관하여 기본지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태도와 습관을 길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가정, 직장,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에 대한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안전교육의 효과는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최영일, 1998).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전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하면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식이나 가치관,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체계적으로 내면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배영한, 2001; 최영일, 1998)). 이를 바탕으로 학교안전교육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안전한 행동 방법을 습득하

게 하여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집단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안전교육 중에서도 초등학교 시기에 받는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받은 교육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알아차리고,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재희, 2013). 안전의식의 형성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기부터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최영일, 1998).

나. 학교안전교육의 방향

안전교육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고 위험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경기도교육청, 2013).

첫째, 안전교육은 학생들이 일생생활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러 형식의 안전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안전교육은 지속적이며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회성이나 획일화된 교육을 지양하여 학생 스스로 안전한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이해시키며, 안전행동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안전교육은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의 안전교재는 학년 구분 없이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나 수준의 일관성이 없어서 각 학년에 맞는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못했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할 때에는 지도내용과 지도방법을 학년별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안전교육은 학생들의 생활패턴과 주기를 중심으로 삼아 각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도 있겠지만 주위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교육은 가정과 연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아동의 학교 안전생활과 교통 안전생활의 실천 행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며, 학부모와 연계한 가정에서의 지도가 병행될 때 교육의 효과가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이재남, 2006). 따라서 가정통신문이나 정기적인 학부모 연수를 통해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보호가 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초등학교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안전교육 방향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성숙 단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된다. 아동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화재, 낙상, 익사, 상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기는 성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

고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성인들은 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한 후 지도해야 한다(최영일, 1998).

아동기에는 신체가 튼튼해지고 발달하는 시기로서 육체적인 힘이 보다 강해진다. 아동들은 자신에게 생긴 힘을 행사하려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며, 자아 통제나 복종에 대한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아동들은 이러한 자신의 특징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안전에 대한 교육도 이 시기에 병행되어야 아동들이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전재완, 2004).

아동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탐험에 대한 충동

아동기에는 계속되는 놀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한다. 아동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일상생활과 놀이는 점차 현실적으로 변해 간다. 놀이도 단순한 탐험이나 실험의 단계에서 능력을 개발시키는 단계로 변화한다. 능력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보다 복잡하고 책임감 있는 과업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아동들의 개성은 자신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규칙을 필요로 한다. 아동들은 규칙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규칙은 문명화된 사회의 기초 원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견해를 점차 갖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아동들은 자아 통제, 자아 단련, 자아 인식에 대한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

간다(이재민, 2003)

아동들은 항상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충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주변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 통제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아동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사회의 규칙 및 질서에 맞추어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린이들의 탐험심과 호기심을 규칙과 질서 내에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석혜민, 2005).

나. 자아 통제와 자아 단련

아동들은 자아통제와 자아단련,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발전시켜 나간다. 성장하는 아동들을 위험으로부터 매번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위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의 위험에 직면한 아동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린 뒤 실천으로 옮긴다. 이런 행동은 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위험 상황에 빠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배영한, 2000).

다. 방어적 행동

아동들은 자라면서 점차 방어적인 행동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통학할 경우에는 복잡한 교통질서를 지킬 만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런 능력이 미숙하므로 혼자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버스나 자동차로 통학하는 경우라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자동차 안에서는 행동을 조심하고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최영일, 1998).

아동들에게 안전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다. 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습관을 길러 주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석혜민, 2005).

라. 풍부한 상상 활동

아동기에는 여러 가지 상상 활동이 풍부해진다. 상상 활동에는 스스로 하는 창조적 상상과 남이 상상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모방적 상상이 있는데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창조적인 상상은 8~9세부터 발달하여 13~14세 사이에 왕성해진다. 이 시기에는 상상과 현실이 나누어지며 물리적인 변화나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적인 요구가 높아진다(배영한, 2000).

아동들의 풍부한 상상 활동은 자신들이 접하는 마스크의 주인공들이나

흥미로운 동작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동들의 풍부한 상상 활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단순 모방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하다(최영일, 1998).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친구들의 유혹에 빠지는 것과 금지된 행동에 대해 매우 강한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기심으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독립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전재완, 2004).

4. 초등학교의 학년별 안전교육 목표

지식이 늘어나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면서 가치관과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쌓게 하고, 안전의식을 체계적으로 내면화시키는 일은 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모든 교육 활동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안전교육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취학 전과 학령기 아동들의 사망 원인의 1/3 이상이 사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의 안전교육은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고루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년에 따라 교육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진다.

초등학교의 학년별 안전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최영일, 1998).

가. 1학년 안전교육의 목표

1학년은 낱말의 의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므로 안전이나 사고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유아적 특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주의력이 부족하며 자기중심적이지만 사회의 요구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나이이므로 위험 요소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교사를 절대적 권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이들의 안전의식 형성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안전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부엌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옷이 불이 붙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길을 건너갈 때 안전하게 건너가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여섯째, 자전거 탈 때 어떤 점에 주의하며 타야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일곱째, 자동차나 버스를 탔을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설명할 수 있다.

여덟째, 낯선 사람과 마주쳤을 때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을 설명할 수 있다.

아홉째,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나. 2학년 안전교육의 목표

2학년은 1학년에 비해 운동 기능이 좀 더 발달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아지고, 혼자만의 놀이에서 벗어나 차츰 협동적이고 조직적인 놀이를 즐기기 시작하며, 경쟁심이 강해서 친구들과 잘 싸우게 된다. 사고의 위험은 항

상 도사리고 있지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안전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눈과 귀를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가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성적 학대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좋은 비밀과 나쁜 비밀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여섯째,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보호 기술과 적절한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다. 3학년 안전교육의 목표

3학년은 저학년에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사회성이 조금씩 발달하고 문제해결력도 생긴다. 또한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놀이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규칙을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보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안전의식 형성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인 안전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사고에서 안전벨트가 하는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한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독성 있는 물건의 중독을 피하기 위한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수영을 할 때 필요한 안전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다치거나 아픈 사람을 도울 때 필요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여섯째, 낯선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일곱째, 벤 상처와 코피, 골절, 화상, 벌에 쏘임, 굶힌 것에 대한 응급처치를 설명할 수 있다.

라. 4학년 안전교육의 목표

4학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습관에서 객관적 가치판단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어휘력이 풍부해지고 말하기 능력이 신장되는 시기이므로 안전 수칙의 중요성이나 응급처치의 정의를 스스로 내릴 수 있다. 또한 사리판단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회적 규범을 받아들이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고, 문제해결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동안 배웠던 안전수칙에 따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안전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수칙이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낙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셋째, 집에 침입하려고 하는 낯선 사람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집안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자전거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자전거를 탈 때 상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여섯째, 길을 걷다가 생길 수 있는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일곱째, 물속에서 안전하게 수영하는 방법과 수영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나 구조를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여덟째, 응급구조가 필요할 때 전화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아홉째, 굵힘, 출혈, 기도폐쇄의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마. 5학년 안전교육의 목표

5학년은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고 창조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가 발달하며, 논리적인 사고를 확장시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을 따르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안전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대처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실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구체적인 안전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수칙을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집과 학교에서 안전 유해물을 인식할 수 있다.

셋째, 보행자의 정의와 안전한 보행법을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자동차 안에서의 안전 유지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자전거에서 떨어졌을 때 생기는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여섯째, 집에 화재가 났을 경우 탈출 계획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일곱째, 벌에 쏘였을 때,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자외선 화상을 입었을 때의 응급처치법을 설명할 수 있다.

여덟째, 찰과상, 자상, 창상의 응급처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아홉째, 골절이 생겼을 경우 응급처치법을 설명할 수 있다.

바. 6학년 안전교육의 목표

6학년은 논리적인 체계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그동안 형성해 온 안전의식에 따라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적절한 간호 방법이나 예방법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학습을 유기적 조직체로서 이해할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 판단을 자신의 기준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안전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처치 시에 지켜야 할 수칙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응급처치의 시범을 보이고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출혈 시에 간호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쇼크, 골절, 화상의 간호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열사병의 증상과 간호법을 설명할 수 있다.

여섯째,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화상의 예방법과 처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일곱째, 폭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여덟째, 차를 탔을 경우 안전띠 착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아홉째, 수영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5.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가. 기존의 안전교육 실시 내용

(1) 학생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령 현황

<표 II-1> 학생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령 현황

구분	주요 교육내용								
	안전 사고	교통 안전	약물 오·남용 교육	학교 폭력 (성폭력)	재난 안전	실종·유괴	체험 활동	응급 처치	질병 예방
학교 안전법	○	○	○	○	○		○		
학교 보건법			○	○				○	○
학교 폭력법				◎					
아동 복지법		●	●	●	●	●			
성폭력 방지법				●					
성매매 방지법				●					
소방 기본법					○ (소방)				

출처: 여수교육청(2016)

※ 참고사항: (○) 교육실시 규정, (◎)교육시간 규정, (●) 교육시간 및 보고규정

(2) 아동복지법상 안전교육 실시 내용

<표 II-2> 아동의 안전교육 실시 주기

구분	교통안전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44시간)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출처: 아동복지법 제31조 제3항

나.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개발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안전교육은 그동안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던 중 2014년 세월호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 사회적 불안 심리가 고조되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대형 참사를 예방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로 교육부는 2014년 ‘교육 분야 안전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안전의식 부족과 취약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현장의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이근화, 2017)

교육부는 ‘교육 분야 안전종합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학생의 발달단계별 수준에 맞추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표준자료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 체계도, 교육과정 분석, 교사용 지도서 및 학생용 워크북,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교

육부, 2016) 또한 발달단계에 맞춰 유치원은 2개 영역(사회관계, 신체운동·건강), 초등학교는 4개 교과, 중학교는 6개 교과, 고등학교는 5개 교과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체험형 교육·훈련은 연간 5시간 이하가 대부분이며, 현장 교사와 안전교육 전문가와를 위촉하여 유아에서 고등학생까지 발달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교육부, 2015)

다.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내용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7개 영역(대분류), 25개의 중분류, 52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각 영역별 내용과 학교급별 안전 교육 수업시수는 다음과 같다.

<표 II-3>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영역	중분류(25개)	소분류(52개)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 이용 안전	시설안전
		제품안전
		실험실습안전
	신체활동 안전	체육 및 여가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 사고 예방	유괴 및 미아사고 예방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교통 표지판구별하기
		길을 건너는 방법
		보행안전
	자전거 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안전한 자전거 관리

	오토바이 안전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오토바이 운전 중 주의사항
	자동차 안전	자동차 사고의 원인·피해
		자동차사고 예방법
	대중교통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폭력 및 신변안전	학교폭력
언어 / 사이버폭력		
물리적 폭력 (신체, 금품갈취, 강요),		
집단 따돌림		
성폭력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성매매 예방
자살		자살예방 및 대처방법
가정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약물· 사이버 중독	약물중독	마약류 폐해 및 예방
		흡연 폐해 및 예방
		음주 폐해 및 예방
		고카페인 식품 폐해 및 예방
	사이버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재난안전	화재	화재발생
		화재발생 시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사회재난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각종 테러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자연재난	홍수 및 태풍 발생 시 대처요령
		지진·대설·한파·낙뢰 발생 시 대처요령
직업안전	직업안전의식	직업안전 의식의 중요성
		직업안전 문화
	직업병	직업병의 의미와 발생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직업안전의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 관리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이해와 중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 처치, 염좌 및 골절처치, 화상 응급처치, 갑작스런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김정희, 2015)

〈표 II-4〉 학교급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 안전 교육	교통 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교육	재난 안전 교육	직업 안전 교육	응급 처치 교육
교육 시간	유치원	14	11	10	6	6	2	2
	초등학교	12	11	10	6	6	2	4
	중학교	8	7	11	11	7	3	4
	고등학교	8	5	11	11	7	5	4
횟수		학기 당 2회 이상	학기 당 2회 이상	학기 당 2회 이상	학기 당 2회 이상	학기 당 2회 이상	학기 당 1회 이상	학기 당 1회 이상

출처: 교육부(2016)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 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2.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3.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4.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5.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초등학교 영역별 안전교육 내용

<표 II-5> 초등학교 생활안전 교육 내용

중분류	소분류	초등학교 교육내용
시설 및 제품 이용 안전	시설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등굣길 • 안전한 교실활동 • 화장실에서 안전 • 미끄럼 사고의 위험 • 복도와 계단에서 안전한 통행 • 특별실에서 안전 • 안전한 놀이기구
	제품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장난감 놀이 • 안전한 학용품 놀이 • 안전한 공산품 사용
	실험 실습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실험 시 보호 장구 사용법 알기 • 과학실험 시 안전하게 실험 실습 도구 사용하기 • 안전사고 시 대처방법 알기
신체 활동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발생하는 사고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안전 • 출입문, 현관문 안전하게 사용 • 고마운 전기, 위험한 전기 • 가스 안전하게 사용하기 • 공연장에서 안전, 비상구 대피로 안전 • 시설물 안전(맨홀, 환풍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첨가물 안전 • 전자제품 안전하게 • 식중독 예방
유괴 미아 사고 예방	유괴 미아 사고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과 안전하게 지내기 • 탈 것 안전-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인라인, 킥보드 •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 스포츠 활동 안전 • 물놀이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 수업 • 안전한 공놀이 • 안전한 캠핑활동 • 안전하게 등산하기
유괴 미아 사고 예방	유괴 미아 사고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괴 예방 • 미아 사고 예방과 대처

출처: 교육부(2016)

<표 II-6> 초등학교交通安全 교육 내용

중분류	소분류	초등학교 교육내용
보행자 안전	교통표지판 구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판 • 신호등
	길 건너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보도 길 건너기 • 육교와 지하도 • 길 건너기와 놀이
	보행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내 외륜차
자전거 안전	자전거 타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준비 • 안전한 자전거 타기 • 안전한 자전거 타는 장소
자동차 안전	자동차 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의 이해 • 어린이 통학버스 • 안전띠 매기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안전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의 의미 • 안전한 지하철 이용 • 안전한 버스이용 • 안전한 비행기, 선박이용

출처: 교육부(2016)

<표 II-7> 초등학교 약물 사이버 중독 교육 내용

중분류	소분류	초등학교 교육내용
약물 중독	마약류 폐해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에 대한 이해 • 약물 오남용 위험성 인식 • 약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 • 올바른 약물 복용법 숙지
	흡연폐해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의 역사와 성분 이해 • 담배의 유해성 인식 • 담배연기 없는 환경 만들기 • 간접흡연의 해로운 점 인식 • 흡연권유시 거절 방법 •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 인식
	음주폐해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의 유해성 인식 •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음주운전의 위험성 인식 • 과음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술로 인한 피해 알기 • 금주서약서 작성
	고카페인 식품 폐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카페인 식품 종류 파악 • 고카페인 식품섭취 예방 실천
사이버 중독	인터넷 게임중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사용 습관 파악 • 인터넷게임 예절 숙지 • 인터넷게임 중독 극복방안 • 인터넷게임 중독진단 • 자기조절 능력배양 • 인터넷의 건전한 사용 방안
	스마트폰 중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습관형성 •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방안

출처: 교육부(2016)

<표 II-8> 초등학교 폭력 및 신변안전 교육 내용

중분류	소분류	초등학교 교육내용	
학교 폭력	학교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이해하기 • 손이 하는 좋은 일 부끄러운 일 발표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통해 학교폭력 인식 •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이해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이해와 발표 	
	언어·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성 댓글 예방 • 언어생활 점검 •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의미 알기 • 올바른 언어습관, 바람직한 대화법 알기 • 올바른 채팅 용어 사용 • 언어폭력의 유형 이해(놀리기, 욕설) •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 알기 • 고운말 칭찬 릴레이 • 올바른 이모티콘 사용 	
	물리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폭력에 대한 의미를 알고 피해와 예방대책 마련하기 • 사례를 통해 신체폭력의 유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심각성 인식하기 • 학교에서 나타나는 금품갈취 유형과 법적 조치 알기 • 괴롭힘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고 대처하기 • 학교폭력 피해에 대비해 자기 보호 방법 배우기 • 또래 조정활동을 통한 친구문제 도움주기 •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배우기
	집단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따돌림 이해하기 • 집단 따돌림의 위험성 알기 •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기(공감하기, 편지쓰기) • 집단 따돌림 대처법(거부하기, 도움청하기, 신고하기) 	
성폭력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소중히 여기기 • 성예절 알고 성폭력에 대처하기 • 2차 성징에 따른 몸의 변화알기 • 성폭력 사건의 실태 인식하고 예방 및 대처법 배우기 • 성폭력 이해하고 대처하기 • 또래 성폭력을 이해하고 예방 및 대처법 알기 	
	성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교제 바로 알고 나의 소중함 알기 	
아동 학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이해하고 유형 알기 • 아동학대 대처방법 알기 •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알기 	

자살	자살예방 및 대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존중의 태도와 중요성 배우기 • 자존감 향상 • 임신출산과 생명 • 감사편지 쓰기 • 고민공유 상담을 통해 해소하기
가정 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의 유형과 기능과 개념 및 역할 알기 • 가정폭력의 정의 및 유형알기 • 가정폭력의 피해 증상알기 • 가정폭력(아동학대)의 피해 징후와 후유증 알기 • 가정폭력 대처법 알기- 도움요청, 신고, 피해자 지원제도

출처: 교육부(2016)

<표 II-9> 초등학교 재난안전 교육 내용

중분류	소분류	초등학교 교육내용
화재	화재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기본 개념 • 화재의 발생 원인과 주요 특징
	화재발생 시 안전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발생 시 기본 대피 요령 • 화재발생 시 신고 요령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의 종류와 작동 원리 • 소화기와 소화전의 사용 방법
사회재난	폭발과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과 붕괴 발생 시 기초적인 대피 방법 • 폭발과 붕괴 발생 시 구조요청 방법
	각종 테러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여행 시 안전요령 • 안전상황과 화학테러에 대한 대처요령
자연재난	홍수 및 태풍 발생 시 대처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예보청취 및 대피요령 • 태풍예보청취 및 대피요령
	지진, 한파, 대설, 낙뢰 발생 시 대처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낙뢰 발생 시 기초적인 대처요령 • 한파/폭설/황사 발생 시 기초적인 대처요령

출처: 교육부(2016)

<표 II-10> 초등학교 직업안전 교육 내용

중분류	소분류	초등학교 교육내용
직업안전 의식	직업안전의식 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터에서 사용하는 안전 도구와 장비 체험하기 • 일터에서의 안전의식의 의미와 필요성 • 일터에서의 안전관리 문제와 중요성
	직업안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터 안전시설 견학하기 • 직업안전 문화의 필요성과 안전문화운동 • 직업안전 의식의 태도와 고취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표회

출처: 교육부(2016)

<표 II-11> 초등학교 응급처치 교육 내용

중분류	소분류	초등학교 교육내용
응급처치 의 이해와 필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의 의미 알기 • 응급처치의 중요성 알기 • 응급상황 알기와 이해하기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신고와 알림 • 응급상황 시 행동수칙 알기 • 사고예방 수칙 알기 • 환자의 상태 확인하기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씻기와 소독하기
심폐 소생술	심폐소생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이해하기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제세동기사용법 이해하기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도폐쇄의 원인과 증상알기 •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하기
	지혈 및 상처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염좌 및 골절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부위 별 골절 처치하기
	화상응급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의 종류와 증상알기 • 화상의 예방법과 응급처치
	갑작스런 상황 에서 응급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피 날 때 등 일상생활에서의 응급처치 • 물놀이 등 야외활동 시 응급처치

출처: 교육부(2016)

6. 외국의 학교안전교육 사례

가. 미국

미국은 그동안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학교들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응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두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도 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과 관련된 연수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총기 사건, 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 등도 학교 안전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 학교의 안전교육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안전교육을 법령으로 의무화하기도 하고, 개별 학교 구에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기도 한다. 학생의 교육권이 주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주에 따라 학교 안전에 관한 법령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안전교육은 학교 안전과 연관된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 교육과정의 범위와 내용은 학교 규모와 위치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그 까닭은 지역마다 부각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교통 및 화재, 총기사고, 학교폭력 등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안전교육은 소방안전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이다. 40년 전부터 화재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이

를 교육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해 왔다. 학생들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불의 위험성에 대해 직접 살펴보고 소화기를 작동해보게 하는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저학년에 필수적으로 소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공립학교의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교통안전교육은 학생들이 교통법규와 규칙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교육은 교실 내에서 강의 형식으로도 이루어지지만 교사와 함께 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면학 분위기를 흐리고 건전한 학교 풍토를 저해하는 마약이나 왕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많은 편이다.

(2) 특징

미국의 안전교육은 획일적인 연방정부 차원의 안전교육 매뉴얼보다는 지역과 단위학교에 알맞은 안전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는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을, 지진이 많은 곳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더 많은 교육 시간을 할애한다.

최근 들어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에 따라 학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전자 우편과 문자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황을 통보해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 공지 및 통보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63%인데 그 수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2014).

나. 영국

영국의 안전교육은 학교 안팎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활동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 교육이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다양한 교육 경험을 단순히 제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려하는 교육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의 내용은 위험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안 학습을 포함하고 있다.

(1) 학교의 안전교육

영국의 학교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교육활동은 직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에 의거해 반드시 지켜야할 법정 의무이다. 지역청 및 학교경영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교직원 또한 스스로 자신의 안전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

학교장 및 고용주는 교내 활동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항상 기록해 두어야 한다.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예상해 미리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학교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교육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한 교육을 위해 일선 교사는 기본적인 응급조치 훈련을 받고, 학교는 교사에게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운영 등에 요구되는 다양한 법적 자문이나 구비 서면 등에 대하여 조언하고 있다. 또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 교육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교육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도로안전, 가정활동 내 안전, 마약, 흡연, 음주와 관계된 일신의 안전 등이 있다. 1~2 단계에서는 가정 내 안전 및 도로안전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3~4 단계에서는 운전교육 및 음주교육 등에 연계해 개인의 안전 및 도로 안전에 대해 학습한다.

(2) 특징

영국의 학교 안전교육은 안전한 교육과 안전교육의 두 가지 관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안전한 교육을 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유형별 가이드라인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많은 학교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구를 개발해 이용하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학령기별 특성을 고려해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여행 및 도로안전 교육 자료로 제시한 ‘출발 전 지식(Know Before You Go)’은 청년에게 적합한 안전교육이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청년들은 대학교육을 받기 전에 1년 정도 두루 건문을 넓히는 시간인 Gap Year를 갖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진다. ‘출발 전 지식’은 이러한 대상 연령의 특성을 감안해서 만든 교육 자료로 젊은 학생들이 여행지에서도 안전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종합해 보면, 영국의 안전교육은 법 보호 아래, 적절한 보조기구를 통해 교육내용 개발 및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받고 있다(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2014).

다. 일본

일본은 그동안 화산, 지진,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방재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구축해 놓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재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반복하고, 학교를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비상물품을 구비하고 있고, 비상시의 역할 담당을 미리 정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교육활동 중의 사고, 개인정보 관리, 이지메, 외부 침입자, 열사병 등을 포함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1) 학교의 안전교육

2009년에 개정된 ‘학교보건안전법’ 3장 제27조에서는 모든 학교에 학교안전계획의 책정과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각 학교는 학교보건안전법의 취지를 살려 방재(안전)의 관점에서 시설 및 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통학을 포함한 학생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안전에 관한 지도나 교직원 연수 등의 학교안전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야 한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95.7%의 학교가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초·중학교의 85.1%가 통학로 안전매를 작성하고 있다.

학교안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에 관한 교육과 학교 시설 및 설비의 정비를 충실히 하고 있다. 긴급 지진 속보 등을 활용한 방재교육의 개발과 보급, 시범사업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난훈련을 실시하고, 유아나 장애 학생, 운동능력과 판단능력 등을 고려해 각 학생의 상황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의 대책을 추진하고, 원자력 재해에도 대응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학교 시설 및 설비의 정비를 충실하게 점검하고 있다. 학교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는 방재기능과 내진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국립과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의 위기관리는 시기별로 사전관리, 발생 시 대응, 사후관리로 나눌 수 있다. 예측되는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 설비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정보연락체제 정비 등은 사전관리에 속하고. 발생 시의 대응으로는 기본적인 대응(초기대응, 피난, 응급처치, 2차 대응, 사후대응, 유의점), 일상생활에서의 대응(등하교, 교외 활동 중, 휴일, 야간), 재해별 대응이 있다. 사후관리로는 학생 등의 마음 케어, 교육활동 재개를 위한 대응, 피난처로서의 대응이 있다.

(2) 특징

일본의 학교안전교육은 지식, 사고, 판단을 기르고, 위험을 예측해 주체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며, 발달단계에 따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 재해 시에 필요한 기기와 물품을 예상하여 구비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상시에 시설과 설비 등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하며, 피난경로와 방법, 재해발생 시의 대처(매뉴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학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교육과 방재 훈련을 학부모와 지역주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연락망과 협력사항이 사전에 정리되어 있고, 역할 분담도 잘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실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혼란이나 2차 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수습과 복구를 재빠르게 할 수 있게 한다(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2014).

라. 중국

중국에서는 매년 약 16,000명의 초·중등학생이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숨

진다는 통계가 있다.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14세 이하 청소년 및 아동들의 사망에 주요 요인으로 드러나자 전문가들은 초·중등 학생의 자아 보호능력을 안전교육을 통해 향상시킨다면 80% 정도의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이 의견에 동의해 초·중·고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해 모든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1) 학교의 안전교육

중국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공공 안전교육 지도요강’을 제정한 이유는 초·중등학생의 공공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요강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의 상해를 줄임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의 발달정도를 고려하고,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에는 공공위생, 사회 안전, 인터넷정보안전, 뜻밖의 상해, 자연재해 및 기타 학생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개인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안전교육의 핵심이므로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생의 발달 정도에 적합한 내용을 구성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대부분 각 과목의 수업과정이나 종합 활동 과정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다. 교사들에게 교과 내용 중에서 안전 관련 부분을 찾아 수업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요구한다. 교과 내에 포함하기 어려운 교육

내용은 별도의 시간을 이용하거나 학급회의, 특별 강좌, 게시물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학생들이 전달하고자 한다.

학교는 안전교육을 위해 교통, 치안, 소방, 위생 및 지진 등과 관계된 여러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맺어 관계자들이 학교 밖에서 안전교육을 이끌어 줄 것을 요구하고, 여러 형태의 안전 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 특징

중국의 안전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안전능력보다는 안전지식의 함양을 더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방법에 대해 안전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안전교육 받았다 할지라도 안전의식이 희박하고 안전 대처능력과 판단능력도 충분치 못하다고 평가했다.

둘째, 학교에서 전문 안전교사를 양성하기보다는 주로 담임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담임교사는 정식으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양질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담임교사의 안전교육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문 교사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안전교육 중 학교폭력안전교육보다는 교통안전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매년 학교폭력 사고 피해자 수는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교통사고 이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안전교육 자료로 시청각 자료 개발보다는 서책 자료를 더 많이 편찬한다. 주로 글자 위주로 된 자료 때문에 흥미가 떨어지고, 내용이 추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 교육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어렵다. 안전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기호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

로운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2014).

마. 시사점

지금껏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사고들의 원인을 규명해보면 인재로 인한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평소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사고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현재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배움의 장에서는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각 학교들은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지식을 익히고 안전습관을 형성시켜 다양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안전교육에 힘쓴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 안전교육의 개선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안전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미국, 영국, 일본은 안전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안전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교육을 통해 숙지시키고 있다. 이것은 교사들의 안전교육 역량을 키워 수준 높은 안전 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의 안전교육 자료들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거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자료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발표되면서 교육부 산하의 학교안전정보센터에서는 안전에 대한 자료들을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안전교육의 목적은 불시에 닥친 위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므로 앞으로도 안전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체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의 안전교육은 이론 교육이 주류를 이룬다. 이론 교육은 안전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론 교육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의식적이며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형 훈련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사고 유형을 상상해보고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를 작동시켜 훈련한다면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안전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교사인데 이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학생들의 안전의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들의 안전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교사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만 안전교육을 전담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안전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국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7. 선행연구 고찰

인간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며 주변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생활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각종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항상 잠재적인 불안을 안고 있다(김주영, 2001)

우리 사회가 위험한 것은 안전의식의 부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한 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식이 형성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각종 사고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과 장치 등을 갖추고, 올바른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석혜민, 2005).

안전의식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이수정, 1997; 최영일, 1998). 또한 교육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명령이나 지시로 얻어진 결과보다 오래 간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어린 시절의 안전교육은 어느 특정 부분이 아닌 생활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심은순, 2003)

지금까지 안전과 관련된 많은 연구 중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들을(김정희, 2016; 김현기, 2014; 배영한, 2000; 심은순, 2003; 이수정, 1997; 이재남, 2003; 이창희, 2010; 임현, 2013; 임현주, 2005; 정명애, 2000; 전재완, 2004) 살펴보면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안전교육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있다. 배영한(200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안전교육에 대한 반응도에 보통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해 안전교육에 대해 재미있지는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37.1%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재완(2004)은 아동들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안전교육이 형식적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아 수업이 보통이거나 재미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둘째,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다수 있다. 이창희(2010)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안전의식 수준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이 더 높았고, 대상자의 대부분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배운 안전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희(2015)는 초등학생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안전과 관련된 독서교육을 한 후 안전의식 변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평균과 사후점수가 높아 독서를 통한 안전교육도 초등학생들의 안전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이 실천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있다. 임현주(2005)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안전의식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안전의식 수준에 비해 안전실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안전의식 정도나 안전실천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재완(2004)의 조사에서는 성별이나 학년에 의한 실천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명애(2003)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임현(2003)은 4학년과 5학년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해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생활 실천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안전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실천 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안전의식 및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있다. 심은순(2003)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안전실천 정도도 높았고, 안전의식이 낮은 경우에는 사고의 발생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기(2014)의 연구에서는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초등학생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활동이 활발해 사고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고 발생의 원인은 본인이 조심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 박대성(2005)은 안전의식 정도와 사고 발생을 파악해 안전의식 정도가 낮은 집단이 안전의식이 높은 집단에 비해 사고의 발생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상의 안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행동의 습관화와 더불어 태도 형성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함양과 함께 안전실천의 생활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실천의 습관화에 중점을 둔 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2개 학교를 선정해 해당 학교의 4~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초등학생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각 학급 담임에게 응답할 때의 유의 사항과 질문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대상자들은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질문지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전체 500부 중에서 미회수와 미기입 등 설문지 기입에 문제가 있는 설문지 24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는 총 476부를 사용하였다.

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학년, 주거형태, 통학 형태, 형제 수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39	50.2
	여자	237	49.8
학년	4학년	156	32.8
	5학년	149	31.3
	6학년	171	35.9
주거 형태	단독주택	38	8.0
	아파트	373	78.4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	54	11.3
	빌라,상가주택에 붙은 주택	11	2.3
통학 형태	걸어서	425	89.3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8	1.7
	자전거	0	0
	자가용	43	9.0
형제 수	독자	78	16.4
	2명	315	66.2
	3명	70	14.7
	4명	13	2.7
전 체		476명	100.0%

나. 연구대상의 학교생활 특성

연구대상자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생활, 친한 친구, 공부 수준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결과는 <표 III-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2> 학교생활 특성

변인	구 분	빈도	백분율(%)
학교 생활	즐겁고 대체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한다.	356	74.8
	그저 그렇다.	117	24.8
	학교에 자주 가기 싫고 결석을 자주 하는 편이다.	3	0.6
친한 친구	많은 편이다.	263	55.3
	조금 있는 편이다.	173	36.3
	별로 없는 편이다.	38	8.0
	전혀 없는 편이다.	2	0.4
공부 수준	매우 잘하는 편이다.	34	7.1
	잘하는 편이다.	354	74.4
	잘 못하는 편이다.	82	17.2
	아주 못하는 편이다.	6	1.3
전 체		476명	100%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절차는 연구대상 선정, 설문지 제작, 설문지 배부 및 회수, 결과 처리 순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 시내에 있는 2개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각 학급 담임에게 응답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질문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한 뒤,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담임의 주도하게 설문이 시작되었고, 응답한 설문지는 즉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정희(2015)의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예비검사를 통하여 내용의 적합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그 신뢰도를 검증하여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가. 조사도구의 구성 내용

본 연구의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 학교생활 특성 3문항, 안전교육 관련 사항 12문항과 안전의식을 묻는 사항 67문항, 전체 8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의식을 묻는 67문항은 생활안전 분야 17문항, 교통안전 분야 10문항, 응급처치 분야 11문항, 재난안전 분야 9문항, 안전에 대한 실천정도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지의 응답형태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응답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조금 그렇지 않다”는 2점, “조금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을 부여하였다.

나. 조사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생활안

전 분야 .717, 교통안전 분야 .760, 응급처치 분야 .747, 재난안전 분야 .746, 안전에 대한 실천정도 .906으로 신뢰도는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III-3>와 같다.

<표 III-3> 조사도구의 신뢰도

구 분	문항수	Cronbach's <i>a</i>
생활안전 분야	17	.717
교통안전 분야	10	.760
응급처치 분야	11	.747
재난안전 분야	9	.746
안전 실천정도	20	.906

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frequency)을 실시하였다.
- 2)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3) 안전교육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생활안전 분야, 교통안전 분야, 응급처치 분야, 재난안전 분야, 안전에

대한 실천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t -test),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Duncan방법을 실시하였다.

5) 생활안전 분야, 교통안전 분야, 응급처치 분야, 재난안전 분야, 안전에 대한 실천정도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안전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

안전교육과 관련된 질문에서 성별, 학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와 같다.

가.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필요성의 인식 정도

<표 IV-1>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필요성의 인식 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χ^2
성별	남자	4(1.7)	13(5.4)	86(36.0)	136(56.9)	239(100.0)	3.158
	여자	10(4.2)	16(6.8)	81(34.2)	130(54.9)	237(100.0)	
학년	4학년	8(5.1)	11(7.1)	63(40.4)	74(47.4)	156(100.0)	9.852
	5학년	3(2.0)	10(6.7)	50(33.6)	86(57.7)	149(100.0)	
	6학년	3(1.8)	8(4.7)	54(31.6)	106(62.0)	171(100.0)	
전체		14(2.9)	29(6.1)	167(35.1)	266(55.9)	476(100.0)	

<표 IV-1>와 같이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정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158$,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여자 모두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조금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852,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조금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학교에서도 여러 형태의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안전교육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초등학교 4~6학년 남녀 학생들 모두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횟수

<표 IV-2>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횟수

		전혀 받지 않았다.	1-2회 정도 받았다.	3-4회 정도 받았다.	5회 이상 받았다.	전체	χ^2
성별	남자	4(1.7)	37(15.5)	77(32.2)	121(50.6)	239(100.0)	.623
	여자	3(1.3)	42(17.7)	72(30.4)	120(50.6)	237(100.0)	
학년	4학년	7(4.5)	34(21.8)	47(30.1)	68(43.6)	156(100.0)	46.641***
	5학년	0(0.0)	30(20.1)	61(40.9)	58(38.9)	149(100.0)	
	6학년	0(0.0)	15(8.8)	41(24.0)	115(67.3)	171(100.0)	
전체		7(1.5)	79(16.6)	149(31.3)	241(50.6)	476(100.0)	

***p<.001

<표 IV-2>과 같이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횟수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0.623$,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여자 모두 '5회 이상 받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3-4회 정도 받았다', '1-2회 정도 받았다', '전혀 받지 않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과는 달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6.641$,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 6학년에서는 '5회 이상 받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3-4회 정도 받았다', '1-2회 정도 받았다', '전혀 받지 않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에서는 '3-4회 정도 받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5회 이상 받았다', '1-2회 정도 받았다', '전혀 받지 않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4~6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받은 안전교육의 횟수는 대부분 5회 이상인 걸로 조사되었다. 5학년에서는 3~4회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5회 이상 받았다고 답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안전교육의 실시 횟수가 학교와 학년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꾸준히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부모님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가르침 정도

<표 IV-3> 부모님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가르침 정도

		전혀 가르쳐주 지 않는다.	별로 가르쳐주지 않으신다.	가끔 가르쳐 주신다.	자주 가르쳐 주신다.	전체	χ^2
성별	남자	5(2.1)	37(15.5)	88(36.8)	109(45.6)	239(100.0)	11.542**
	여자	3(1.3)	15(6.3)	106(44.7)	113(47.7)	237(100.0)	
학년	4학년	5(3.2)	25(16.0)	57(36.5)	69(44.2)	156(100.0)	11.895
	5학년	2(1.3)	16(10.7)	62(41.6)	69(46.3)	149(100.0)	
	6학년	1(0.6)	11(6.4)	75(43.9)	84(49.1)	171(100.0)	
전체		8(1.7)	52(10.9)	194(40.8)	222(46.6)	476(100.0)	

**p<.01

<표 IV-3>과 같이 부모님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가르침 정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542$, $p<.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여자 모두 ‘자주 가르쳐 주신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가끔 가르쳐 주신다’, ‘별로 가르쳐주지 않으신다’,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과는 달리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11.895$,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 ‘자주 가르쳐 주신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가끔 가르쳐 주신다’, ‘별로 가르쳐주지 않으신다’,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빈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신 교사

<표 IV-4>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체육 교사	보건 교사	과학 교사	담임교사	외부강사	기타	전체	χ^2
성별	남자	5(2.1)	6(2.5)	1(0.4)	167(69.9)	46(19.2)	14(5.9)	239(100.0)	4.090
	여자	3(1.3)	9(3.8)	0(0.0)	161(67.9)	55(23.2)	9(3.8)	237(100.0)	
학년	4학년	2(1.3)	0(0.0)	0(0.0)	112(71.8)	30(19.2)	12(7.7)	156(100.0)	23.885**
	5학년	1(0.7)	3(2.0)	0(0.0)	105(70.5)	36(24.2)	4(2.7)	149(100.0)	
	6학년	5(2.9)	12(7.0)	1(0.6)	111(64.9)	35(20.5)	7(4.1)	171(100.0)	
전체		8(1.7)	15(3.2)	1(0.2)	328(68.9)	101(21.2)	23(4.8)	476(100.0)	

**p<.01

<표 IV-4>과 같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신 교사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090$,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여자 모두 ‘담임교사’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외부강사’, ‘기타’, ‘보건교사’, ‘체육교사’, ‘과학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과는 달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3.885$, $p<.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은 ‘담임교사’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외부강사’, ‘기타’, ‘체육교사’

의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은 ‘담임교사’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외부강사’, ‘기타’, ‘보건교사’, ‘체육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6학년은 ‘담임교사’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외부강사’, ‘보건교사’, ‘기타’, ‘체육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비율은 60%이상이다. 담임교사는 교과 수업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 강화된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안전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외부강사의 비율이 보건교사나 체육교사보다 높게 나온 것은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시간

<표 IV-5>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시간

		체육 시간	재량활동 시간	학교 행사 시	조회중례 시간	일반수업 시간	휴식 시간	기타	전체	χ^2
성 별	남자	15(6.3)	34(14.2)	70(29.3)	38(15.9)	48(20.1)	10(4.2)	24(10.0)	239(100.0)	9.285
	여자	16(6.8)	38(16.0)	70(29.5)	52(21.9)	45(19.0)	6(2.5)	10(4.2)	237(100.0)	
학 년	4학년	14(9.0)	25(16.0)	37(23.7)	24(15.4)	37(23.7)	5(3.2)	14(9.0)	156(100.0)	57.924***
	5학년	10(6.7)	27(18.1)	35(23.5)	20(13.4)	47(31.5)	4(2.7)	6(4.0)	149(100.0)	
	6학년	7(4.1)	20(11.7)	68(39.8)	46(26.9)	9(5.3)	7(4.1)	14(8.2)	171(100.0)	
전체		31(6.5)	72(15.1)	140(29.4)	90(18.9)	93(19.5)	16(3.4)	34(7.1)	476(100.0)	

***p<.001

<표 IV-5>와 같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시간을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285$,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는 ‘학교 행사 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일반수업 시간’, ‘조회 및 종례시간’, ‘재량활동 시간’, ‘기타’, ‘체육시간’, ‘휴식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학교 행사 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조회 및 종례시간’, ‘일반수업 시간’, ‘재량활동 시간’, ‘체육시간’, ‘기타’, ‘휴식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과는 달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7.924$,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은 ‘학교 행사 시’와 ‘일반수업 시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재량활동 시간’, ‘조회 및 종례시간’, ‘체육시간’, ‘기타’, ‘휴식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은 ‘일반수업 시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학교 행사 시’, ‘재량활동 시간’, ‘조회 및 종례시간’, ‘체육시간’, ‘기타’, ‘휴식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6학년은 ‘학교 행사 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조회 및 종례시간’, ‘재량활동 시간’, ‘기타’, ‘일반수업 시간’, ‘체육시간’, ‘휴식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학생들이 다른 시간보다 학교행사 시에 안전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행사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 학교에서 한 학기에 안전교육을 받은 횟수

<표 IV-6> 학교에서 한 학기에 안전교육을 받은 횟수

		1-2회	3-5회	6-10회	11-20회	20번 이상	기타	전체	χ^2
성별	남자	62(25.9)	77(32.2)	41(17.2)	19(7.9)	32(13.4)	8(3.3)	239(100.0)	2.743
	여자	63(26.6)	82(34.6)	40(16.9)	23(9.7)	25(10.5)	4(1.7)	237(100.0)	
학년	4학년	44(28.2)	52(33.3)	32(20.5)	7(4.5)	17(10.9)	4(2.6)	156(100.0)	38.075***
	5학년	51(34.2)	50(33.6)	16(10.7)	7(4.7)	24(16.1)	1(0.7)	149(100.0)	
	6학년	30(17.5)	57(33.3)	33(19.3)	28(16.4)	16(9.4)	7(4.1)	171(100.0)	
전체		125(26.3)	159(33.4)	81(17.0)	42(8.8)	57(12.0)	12(2.5)	476(100.0)	

***p<.001

<표 IV-6>과 같이 학교에서 한 학기에 안전교육을 받은 횟수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743$,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3-5회’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1-2회’, ‘6-10회’, ‘20번 이상’, ‘11-20회’,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과 달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38.075$,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은 ‘3-5회’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1-2회’, ‘6-10회’, ‘20번 이상’, ‘11-20회’,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은 ‘1-2회’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회’, ‘20번 이상’, ‘6-10회’, ‘11-20회’,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6학년은 ‘3-5회’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10회’, ‘1-2회’, ‘11-20회’, ‘20번 이상’,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동안 안전교육을 받은 횟수를 살펴보면 5학년을 제외하고는 3~

5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번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횟수가 정해지지 않는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 1회 안전교육의 평균 시간

< 표 IV-7> 1회 안전교육의 평균 시간

		30분	1시간 미만	1-2시간	3-4시간	5-6시간	기타	전체	χ^2
성별	남자	58(24.3)	124(51.9)	46(19.2)	3(1.3)	2(0.8)	6(2.5)	239(100.0)	3.733
	여자	57(24.1)	116(48.9)	57(24.1)	2(0.8)	0(0.0)	5(2.1)	237(100.0)	
학년	4학년	62(39.7)	52(33.3)	29(18.6)	3(1.9)	1(0.6)	9(5.8)	156(100.0)	53.844***
	5학년	22(14.8)	93(62.4)	32(21.5)	1(0.7)	0(0.0)	1(0.7)	149(100.0)	
	6학년	31(18.1)	95(55.6)	42(24.6)	1(0.6)	1(0.6)	1(0.6)	171(100.0)	
전체		115(24.2)	240(50.4)	108(21.6)	5(1.1)	2(0.4)	11(2.3)	476(100.0)	

***p<.001

<표 IV-7>과 같이 1회 안전교육의 평균 시간을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733$,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30분', '1-2시간', '기타', '3-4시간', '5-6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과 달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3.844$, $p<.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은 '30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1시간 미만', '1-2시간', '기타', '3-4시간', '5-6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 6학년은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1-2시간', '30분', '3-4시간', '기타', '5-6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을 받은 시간은 4학년보다 5, 6학년이 많은 것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는 방법

<표 IV-8>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는 방법

		강의 형식	시청각 매체활용	토론 형식	체험활동 형식	방문 견학(경찰 서, 소방서)	기타	전체	χ^2
성별	남자	78(32.6)	81(33.9)	9(3.8)	57(23.8)	2(0.8)	12(5.0)	239(100.0)	6.513
	여자	85(35.9)	84(35.4)	7(3.0)	42(17.7)	8(3.4)	11(4.6)	237(100.0)	
학년	4학년	48(30.8)	33(21.2)	6(3.8)	51(32.7)	5(3.2)	13(8.3)	156(100.0)	55.279***
	5학년	48(32.2)	52(34.9)	9(6.0)	29(19.5)	2(1.3)	9(6.0)	149(100.0)	
	6학년	67(39.2)	80(46.8)	1(0.6)	19(11.1)	3(1.8)	1(0.6)	171(100.0)	
전체		163(34.2)	165(34.7)	16(3.4)	99(20.8)	10(2.1)	23(4.8)	476(100.0)	

***p<.001

<표 IV-8>과 같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는 방법을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513$,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는 ‘시청각 매체 활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강의형식’, ‘체험활동 형식’, ‘기타’, ‘토론 형식’, ‘방문견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강의형식’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청각 매체 활용’, ‘체험활동 형식’, ‘기타’, ‘방문견학’, ‘토론’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과는 달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chi^2=55.279$,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은 ‘체험활동 형식’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강의형식’, ‘시청각 매체 활용’, ‘기타’, ‘토론’, ‘방문견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은 ‘시청각 매체 활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강의형식’, ‘체험활동 형식’, ‘토론’, ‘기타’, ‘방문견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6학년은 ‘시청각 매체 활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강의형식’, ‘체험활동’, ‘방문견학’, ‘토론’,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과 체험학습 형식의 수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실에서 실시하는 강의형식의 수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강의형식의 수업보다는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를 직접 체험하는 형식의 안전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후의 평가 방법

<표 IV-9>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후의 평가 방법

		평가 받은 적이 없다.	이론(시험)평가	실기평가	이론(시험)평가 및 실기평가	기타	전체	χ^2
성별	남자	136(56.9)	30(12.6)	41(7.1)	17(7.1)	15(6.3)	239(100.0)	3.436
	여자	134(56.5)	37(15.6)	29(12.2)	22(9.3)	15(6.3)	237(100.0)	
학년	4학년	96(61.5)	20(12.8)	25(16.0)	9(5.8)	6(3.8)	156(100.0)	22.745**
	5학년	77(51.7)	21(14.1)	20(13.4)	11(7.4)	20(13.4)	149(100.0)	
	6학년	97(56.7)	26(15.2)	25(14.6)	19(11.1)	4(2.3)	171(100.0)	
전체		270(56.7)	67(14.1)	70(14.7)	39(8.2)	30(6.3)	476(100.0)	

** $p<.01$

<표 IV-9>와 같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후의 평가 방법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436,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는 ‘평가받은 적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이론(시험)평가’, ‘실기평가’, ‘이론(시험)평가 및 실기평가’,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평가받은 적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이론(시험)평가’, ‘실기평가’, ‘이론(시험)평가 및 실기평가’,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과는 달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2.745, p<.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은 ‘평가받은 적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실기평가’, ‘이론(시험)평가’, ‘이론(시험)평가 및 실기평가’,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은 ‘평가 받은 적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이론(시험)평가’, ‘실기평가’, ‘기타’, ‘이론(시험)평가 및 실기평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6학년은 ‘평가 받은 적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이론(시험)평가’, ‘실기평가’, ‘이론(시험)평가 및 실기평가’,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4~6학년 남녀 학생 모두가 평가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안전교육을 실시만 했을 뿐 사후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 후의 평가를 통해 교육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차.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

<표 IV-10>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χ^2
성별	남자	6(2.5)	3(1.3)	55(23.0)	110(46.0)	65(27.2)	239(100.0)	1.814
	여자	3(1.3)	3(1.3)	54(22.8)	103(43.6)	74(31.2)	237(100.0)	
학년	4학년	2(1.3)	1(0.6)	41(26.3)	66(42.3)	46(29.5)	156(100.0)	8.698
	5학년	5(3.4)	4(2.7)	27(18.1)	70(47.0)	43(28.9)	149(100.0)	
	6학년	2(1.2)	1(0.6)	41(24.0)	77(45.0)	50(29.2)	171(100.0)	
전체		9(1.9)	6(1.3)	109(22.9)	213(44.7)	139(29.2)	476(100.0)	

<표 IV-10>와 같이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84$,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여자 모두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만족한다’, ‘보통이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698$,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만족한다’, ‘보통이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순으로 나타났다.

카. 안전교육 만족도에 대한 이유

<표 IV-11> 안전교육 만족도에 대한 이유

		실생활 도움	재미 있음	안전 지식을 알게 됨	알고 있는 내용 되풀이	실제적 설명 부족	형식적 인 수업	충분하 지 않은 자료	기타	전체	χ^2
성별	남자	68 (25.8)	27 (11.3)	108 (45.2)	23 (9.6)	5 (2.1)	5 (2.1)	1 (0.4)	2 (0.8)	239(100.0)	12.297
	여자	71 (30.0)	8 (3.4)	116 (48.9)	24 (10.1)	7 (3.0)	5 (2.1)	1 (0.4)	5 (2.1)	237(100.0)	
학년	4학년	44 (28.2)	23 (14.7)	65 (41.7)	14 (9.0)	4 (2.6)	4 (2.6)	0 (0.0)	2 (1.3)	156(100.0)	25.189*
	5학년	44 (29.5)	6 (4.0)	73 (49.0)	15 (10.1)	6 (4.0)	1 (0.7)	1 (0.7)	3 (2.0)	149(100.0)	
	6학년	51 (29.8)	6 (3.5)	86 (50.3)	18 (10.5)	2 (1.2)	5 (2.9)	1 (0.6)	2 (1.2)	171(100.0)	
전체		139 (29.2)	35 (7.4)	224 (47.1)	47 (9.9)	12 (2.5)	10 (2.1)	2 (0.4)	7 (1.5)	476(100.0)	

* $p < .05$

<표 IV-11>와 같이 안전교육 만족도에 대한 이유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297,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는 ‘안전지식을 알게 되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재미있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되풀이해서’, ‘실제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수업이 형식적이어서’, ‘기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안전지식을 알게 되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되풀이해서’, ‘재미있어서’, ‘실제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수업이 형식적이어서’, ‘기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과 달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5.189,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은 ‘안전지식

을 알게 되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재미있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되풀이해서', '실제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수업이 형식적이어서', '기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은 '안전지식을 알게 되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되풀이해서', '재미있어서', '실제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기타', '수업이 형식적이어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6학년은 '안전지식을 알게 되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별써 알고 있는 내용을 되풀이해서', '재미있어서', '수업이 형식적이어서', '실제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기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이 실생활에 주는 도움 정도

<표 IV-12>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이 실생활에 주는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체	χ^2
성별	남자	9(3.8)	13(5.4)	64(26.8)	98(41.0)	55(23.0)	239(100.0)	5.261
	여자	3(1.3)	8(3.4)	58(24.5)	105(44.3)	63(26.6)	237(100.0)	
학년	4학년	6(3.8)	8(5.1)	37(23.7)	65(41.7)	40(25.6)	156(100.0)	6.212
	5학년	3(2.0)	8(5.4)	37(24.8)	59(39.6)	42(28.2)	149(100.0)	
	6학년	3(1.8)	5(2.9)	48(28.1)	79(46.2)	36(21.1)	171(100.0)	
전체		12(2.5)	21(4.4)	122(25.6)	203(42.6)	118(24.8)	476(100.0)	

<표 IV-12>과 같이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이 실생활에 주는 도움 정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261$,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는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보통이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212$,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 5학년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6학년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안전의식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의식 차이

안전영역 중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영역의 실천 정도를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13~17>과 같다.

가. 성별, 학년에 따른 생활안전의 의식 차이

<표 IV-13> 성별, 학년에 따른 생활안전의 의식 차이

구분		M	SD	t-test
성별	남자	2.39	1.13	1.833
	여자	2.62	1.10	
학년	4학년	2.27	1.10	7.770**
	5학년	2.47	1.06	
	6학년	2.75	1.14	

**p<.01

<표 IV-13>과 같이 성별에 따른 생활안전의 의식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안전에서 남녀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833$,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몇 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복도에서 달려도 괜찮다’라는 문항에서는 남자 3.69(.70), 여자 3.84(.45)로 나타났고,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 뛰어서 2-3칸씩 밟아도 된다’라는 문항에서는 남자 3.32(.96), 여자 3.51(.81)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생활안전의 의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안전에서 4학년, 5학년, 6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770$, $p<.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몇 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복도에서 달려도 괜찮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63(.77), 5학년 3.77(.57), 6학년 3.89(.37)으로 나타났고, ‘약품은 직접 코에 대고 냄새를 맡지 않아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62(.89), 5학년 3.87(.49), 6학년 3.79(.70)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장 상태가 평평하고 장

애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46(.86), 5학년 3.42(.75), 6학년 3.73(.52)으로 나타났으며,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 뛰어서 2-3칸씩 밟아도 된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39(.88), 5학년 3.38(.95), 6학년 3.56(.84)으로 나타났다. '비 오는 날엔 전봇대나 전깃줄을 만지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86(.59), 5학년 3.96(.18), 6학년 3.97(.18)으로 나타났으며, '전기플러그를 꽂거나 뽑 때는 전깃줄을 잡지 않고 반드시 플러그를 잡는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59(.80), 5학년 3.79(.50), 6학년 3.80(.53)으로 나타났다. '욕실, 화장실 등 매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매트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48(.85), 5학년 3.57(.63), 6학년 3.69(.62)으로 나타났다.

나. 성별, 학년에 따른 교통안전의 차이

<표 IV-14> 성별, 학년에 따른 교통안전의 의식 차이

구분		M	SD	t-test
성별	남자	3.09	1.07	-1.370
	여자	3.22	.94	
학년	4학년	2.89	1.12	8.630***
	5학년	3.24	.90	
	6학년	3.32	.95	

***p<.001

<표 IV-14>과 같이 성별에 따른 교통안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통안전에서 남녀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370,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몇 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차를 탈 때는 승객이 먼저 내린 후 차례로 타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남자 3.80(.50), 여자 3.91(.36)로 나타났고, ‘차를 기다릴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뒤로 물러서 차를 기다린다’라는 문항에서는 남자 3.86(.39), 여자 3.93(.29)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교통안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통안전에서 4학년, 5학년, 6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630,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몇 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장난감, 총, 칼 등을 가지고 놀 때에는 함부로 휘두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81(.49), 5학년 3.83(.44), 6학년 3.91(.27)으로 나타났고, ‘수영장에 들어갈 때는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24(1.11), 5학년 3.55(.78), 6학년 3.58(.86)으로 나타났다.

다. 성별, 학년에 따른 응급처치의 차이

<표 IV-15> 성별, 학년에 따른 응급처치의 의식 차이

구분		M	SD	t-test
성별	남자	3.00	1.09	.545
	여자	2.94	1.09	
학년	4학년	2.79	1.18	6.036**
	5학년	2.91	1.05	
	6학년	3.19	1.09	

**p<.01

<표 IV-15>와 같이 성별에 따른 응급처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응급처치에서 남녀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545$,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한 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피가 날 때에는 깨끗한 거즈로 상처부위를 직접 눌러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남자 3.61(.68), 여자 3.45(.82)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응급처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응급처치에서 4학년, 5학년, 6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036$, $p<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몇 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구급약품 상자는 습기가 없고 시원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42(.90), 5학년 3.62(.60), 6학년 3.74(.53)으로 나타났고, ‘숨을 쉬지 않을 때는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85(.49), 5학년 3.83(.42), 6학년 3.70(.71)으로 나타났다. ‘코피가 많이 날 때는 머리를 뒤로 젖히지 않고 앞으로 숙이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53(.90), 5학년 3.53(.91), 6학년 3.75(.67)으로 나타났고, ‘119에 신고할 때에는 사고 시간과 장소, 다친 사람의 상태, 주위의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93(.37), 5학년 3.99(.14), 6학년 3.99(.07)으로 나타났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먹을 것이나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62(.80), 5학년 3.76(.57), 6학년 3.87(.48)으로 나타났고, ‘뜨거운 물이나 불에 데인 화상인 경우에는 흐르는 깨끗한 수돗물에서 먼저 식혀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78(.61), 5학년 3.89(.41), 6학년 3.91(.27)으로 나타났다.

라. 성별, 학년에 따른 재난안전의 차이

<표 IV-16> 성별, 학년에 따른 재난안전의 의식차이

구분		M	SD	t-test
성별	남자	3.43	.88	-.377
	여자	3.46	.78	
학년	4학년	3.25	.99	7.983***
	5학년	3.46	.77	
	6학년	3.61	.68	

***p<.001

<표 IV-16> 같이 성별에 따른 재난안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재난안전에서 남녀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377$, $p>.05$).

학년에 따른 재난안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재난안전에서 4학년, 5학년, 6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983$,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몇 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교의 각 교실에서 건물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길과 비상구의 표시를 익혀 두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86(.44), 5학년 3.95(.19), 6학년 3.93(.30)으로 나타났고, ‘실험실 알코올 및 기름 화재가 났을 때는 모래 또는 이불 등 넓은 천으로 덮어서 끈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50(.88), 5학년 3.77(.58), 6학년 3.78(.53)으로 나타났다.

마. 성별, 학년에 따른 실천정도의 차이

<표 IV-17> 성별, 학년에 따른 실천정도의 차이

구분		M	SD	t-test
성별	남자	2.96	1.10	.306
	여자	2.93	1.01	
학년	4학년	2.86	1.10	8.207***
	5학년	2.45	1.12	
	6학년	3.19	.91	

***p<.001

<표 IV-17>과 같이 성별에 따른 실천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실천정도에서 남녀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306,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한 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길을 갈 때는 인도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지 않는다’라는 문항에서는 남자 3.79(.49), 여자 3.67(.64)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실천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실천정도에서 4학년, 5학년, 6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207,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몇 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복도나 계단을 이용할 때는 뛰어 다니지 않는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71(.59), 5학년 3.51(.74), 6학년 3.75(.49)으로 나타났고, ‘약품을 직접 코에 대고 냄새를 맡지 않는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79(.70), 5학년 3.82(.61), 6학년 3.95(.21)으로 나타났다. ‘건물 안에 들어갈 때는 비상구의 위치를 항상 확인한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80(.53), 5학년 3.57

(.81), 6학년 3.74(.58)으로 나타났고, ‘화재 시 소화기가 있는 곳을 알고,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익힌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90(.42), 5학년 3.73(.58), 6학년 3.79(.51)으로 나타났다.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전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80(.56), 5학년 3.68(.64), 6학년 3.85(.38)으로 나타났고, ‘눈에 약품이나 먼지가 들어갔을 때는 손으로 만지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씻는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78(.59), 5학년 3.60(.79), 6학년 3.85(.41)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코피가 많이 날 때는 머리를 숙이고 코피가 멈출 때까지 코를 누른다’라는 문항에서는 4학년 3.57(.87), 5학년 3.44(.93), 6학년 3.73(.59)으로 나타났다.

3. 안전의식과 실천정도의 관계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

성별, 학년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와 실천정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18~19>와 같다.

가. 성별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와 실천정도의 관계

<표 IV-18> 성별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와 실천정도의 관계

구분	생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재난안전	실천정도
생활안전	1				
교통안전	.251***	1			
남자					
응급처치	.103	.188**	1		
재난안전	.158*	.295***	.378***	1	
실천정도	.149*	.256***	.376***	.278***	1
생활안전	1				
교통안전	.372***	1			
여자					
응급처치	.319***	.322***	1		
재난안전	.205**	.195**	.292***	1	
실천정도	.249***	.228***	.378***	.193**	1

*p<.05, **p<.01, ***p<.001

<표 IV-18>와 같이 성별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와 실천정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는 생활안전과 교통안전($r=.251$), 재난안전($r=.158$), 실천정도($r=.149$), 교통안전과는 응급처치는 ($r=.188$), 재난안전($r=.295$), 실천정도($r=.256$), 응급처치와 재난안전($r=.378$), 실천정도($r=.376$), 재난안전과 실천정도($r=.278$)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생활안전과 교통안전($r=.372$), 응급처치($r=.319$), 재난안전($r=.205$), 실천정도($r=.249$), 교통안전과는 응급처치는 ($r=.322$), 재난안전($r=.195$), 실천정도($r=.228$), 응급처치와 재난안전($r=.292$), 실천정도($r=.378$), 재난안전과 실천정도($r=.193$)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년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와 실천정도의 관계

<표 IV-19>과 같이 학년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와 실천정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4학년에서는 생활안전과 교통안전($r=.222$), 재난안전($r=.172$), 교통안전과는 응급처치는 ($r=.239$), 재난안전($r=.244$), 실천정도($r=.326$), 응급처치와 재난안전($r=.338$), 실천정도($r=.473$), 재난안전과 실천정도($r=.329$)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학년에서는 생활안전과 교통안전($r=.358$), 재난안전($r=.241$), 실천정도($r=.260$), 교통안전과는 재난안전($r=.169$), 실천정도($r=.162$), 응급처치와 실천정도($r=.324$)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학년에서는 생활안전과 교통안전($r=.310$), 응급처치($r=.175$), 재난안전($r=.192$), 교통안전과는 응급처치는 ($r=.291$), 재난안전($r=.256$), 실천정도($r=.195$), 응급처치와 재난안전($r=.484$), 실천정도($r=.264$), 재난안전과 실천정도($r=.179$)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학년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와 실천정도의 관계

구분	생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재난안전	실천정도
4학년	1				
생활안전	1				
교통안전	.222**	1			
응급처치	.146	.239**	1		
재난안전	.172*	.244**	.338***	1	
실천정도	.147	.326***	.473***	.329***	1
5학년	1				
생활안전	1				
교통안전	.358***	1			
응급처치	.241**	.143	1		
재난안전	.095	.169*	.133	1	
실천정도	.260**	.162*	.324***	.131	1
6학년	1				
생활안전	1				
교통안전	.310***	1			
응급처치	.175*	.291***	1		
재난안전	.192*	.256**	.484***	1	
실천정도	.120	.195*	.264***	.179*	1

*p<.05, **p<.01, ***p<.001

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는 학생들의 안전의식에 대해 기초를 제공하고, 학교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학생들의 안전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 4개 영역의 안전의식의 차이, 그리고 안전의식과 실천정도의 관계 차이를 성별과 학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성별과 학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의 가르침 정도를 묻는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학년에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과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의 가르침 정도를 묻는 질문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정도는 성별과 학년 모두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들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년 동안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3회 이상 받았다고 했고, 부모님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가끔이라도 가르쳐 주신다는 비율도 높았다. 학교안전교육은 대부분 조회 및 종례시간에 담임으로부터 배우며, 다양한 시간에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에 안전교육을 받은 횟수는 5번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 번의 교육시간은 1시간 미만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방식은 강의식과 이론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는 받지 않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과반수 이상이 높았고, 만족 이유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서와 안전지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역별 안전의식을 살펴보면 성별과 학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재난안전 영역의 안전의식은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6학년, 5학년, 4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실천정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6학년, 4학년, 5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안전의식과 실천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별과 학년에서 대체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가 있었다. 남자는 생활안전과 응급처치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끼리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모든 하위요인들끼리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을 살펴보면 4학년은 생활안전과 응급처치, 실천정도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끼리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학년은 생활안전과 교통안전·응급처치·실천정도, 교통안전과 재난안전·실천정도, 응급처치와 실천정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학년은 생활안전과 실천정도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끼리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년 모두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선행연구(남상길, 2004; 임현주, 2005; 이창희, 2010; 박재희, 2013)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이 학교교육과 연계될 때 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이재남(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안전교육도 아이들의 안전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담임교사 다음으로 보건교사, 체육교사, 외부강사 순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박재희, 2013)와 달리 외부강사의 비율이 보건교사나 체육교사보다 높게 나왔다. 교육 현장에서도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학교행사를 앞두고 안전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응답은 선행연구(배영한, 2001; 전재완, 2004)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는데 학교행사 도중에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안전교육 방법은 5학년과 6학년은 시청각 매체가 가장 높은 반면 4학년은 체험활동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교육의 방법으로 강의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교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실 내 수업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이나 외부에 있는 안전교육 기간을 방문해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와 외부의 안전교육 시설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4학년에 체험 활동 비중이 높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5학년과 6학년 까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생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재난안전에서 성별에 따른 의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안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박상섭·이창희, 2010; 한현상·손기상, 2011)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안전교육이 강화되면서 남녀 학생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에서는 6학년, 5학년, 4학년 순으로 나타나 6학년보다 5학년의 안전의식이 높게 나온 선행연구(심은순, 2003)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6학년, 5학년, 4학년 순으로 나타난 것은 안전교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전의식도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천정도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전재완, 2004)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5학년이 4학년보다 안전의식은 높는데 실천정도는 5학년보다 4학년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안전의식이 높다 하더라도 꼭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천에 대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므로 장기간에 걸쳐 안전생활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안전의식과 실천정도와의 상관관계를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생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재난안전에서 남학생의 응급처치와 생활안전을 제외하고는 남녀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학년에서는 4학년과 6학년은 생활안전, 5학년은 재난안전 부분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정적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많이 받았을 때 안전생활 실천정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정명애, 2003)와 유사했다. 실천정도가 낮은 하위영역들은 안전교육과 함께 실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 안전교육을 바탕으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다. 조사 결과 성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학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안전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이번 연구는 7대 학교안전 영역 중 4개 영역만을 조사하였다. 사회적으로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있고, 영역별 안전의식에서는 학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이번에 조사하지 못한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과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영역, 직업안전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의식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의식과 실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안전의식이 높다 하더라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므로 교육으로 형성된 안전의식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습관화에 중점을 둔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각 학교마다 교육 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에서 안전교육은 여전히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다. 담임교사들은 수업 담당과 함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많고,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안전교육 수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담임교사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이끌어가게 하려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직원 직무 연수를 통해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 교육에 대한 정보와 스킬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 전체의 안전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문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참고 문헌

- 장기선(2013). **중등학교 소방안전교육실태 및 안전의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용인시 소재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광진(2007). **환경업체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자훈(2009). **고등학교 체육수업 안전교육 실시현황과 학생인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14).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 <http://www.moe.go.kr>.
- 교육부(2015). **유초중고 발달단계별 학교안전교육 7대영역 표준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5,2,26)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2014). **기획기사**. <http://edpolicy.kedi.re.kr>.
- 경남교육청(2015).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발달단계별 학생안전교육 7대 표준안 연수**.
- 경기도교육청(2013). **행복을 지키는 안전교육 길라잡이**.
- 권상순(2005).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201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안전의식 조사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연(2009). **초등학교 실험 수업에서 실험안전에 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조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덕(2000). **학교 안전사고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숙(201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안전의식 조사연구**. 서울

-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정, 김성희(2009). 초등학생을 위한 교사용 안전교육지침서 개발. **아동간호학회지**, 15(2), 145-154.
- 김영주(2005).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설재해 안전의식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 건설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2010).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실험실 안전관리 실태 및 근로자들의 안전의식도 평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점태(2010). **건설현장 근로자의 특성과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 :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2006). **청소년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삼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2015). **학교도서관의 안전 독서교육이 초등학생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09).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안전교육 실태 비교**.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태(2015). **철도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모(2016). **관리자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차이분석을 통한 안전문화 수준 제고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용(2010). **초등 체육수업 중 안전사고 발생원인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현(2014). **생활안전교육 및 지도법**. 서울:동문사
- 김현기(2014).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상길(2004). **서울 초등학교의 안전교육 현황과 교내 안전교육 사고실**

- 태 조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광열(2016). 초등학생 수영수업에서의 수상안전 의식 관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응근(2014. 4. 22.) “세월호와 하인리히 법칙”. 경향신문.
- 두산동아편집부(1996). 두산백과사전. 서울:두산동아.
- 류효지(2016). 건설현장의 안전분위기와 안전의식 수준이 근로자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대성(2005). 초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사고 발생 실태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2009). 과학실험실 안전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2015). 학생들의 인지발달단계를 고려한 수학학습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장권 (2010). 안전의식 실태분석과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일부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일(2003).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 준수 실태에 관한 연구 : 고양시와 파주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희(2013).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터한 초등학교의 안전교육실태 및 요구 조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필남(2003). 초등학생들의 학교안전생활 실천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6(2), 85-95.
- 박현미(2016). 초등학교 학년군 구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영한(2000). 초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에 관한 아동의 인식. 경남대학

- 교 석사학위논문.
- 서병재(2001). **학교안전사고실태분석 및 지도방향 :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혜민(2005). **초등학교 안전교육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오근(2015). **안전교육과 과학교육을 통합한 프로그램이 특수교육대상 중학생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혜은(2007). **고등학생의 식품위생 및 안전의식과 HACCP 인지도 조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선영(2009). **실험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지식의 변화**.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은순(2003). **초등학생의 안전의식 및 실천정도와 안전사고 발생 실태**. 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해섭(2016). **근로자의 안전의식 저감요인에 대한 연구 : 건설현장근로자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수교육청(2016). **학교 안전교육 전달 연수. 7대 표준안 적용 방안**
- 유상한(2013). **인지발달단계에 따른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재길(1999). **초등학교 안전사고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훈(2010). **전문계 고등학교 실험실습실 안전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간의 태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근화(2017).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한 초등 교과서 안전교육 내용 분석**.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선, 이송이, 김선희(2013). **화재안전교육이 고등학생의 안전행동에 미치는**

- 는 영향 :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위기관리논집, 9(11), 329-344.
- 이미언(2009). **고등학교 화학 1 실험내용 중 실험실 안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지도 조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석훈(2011). **중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실태와 안전의식 수준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1997). **초등학교 아동의 사고예방행동과 사고발생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진(2010). **초등학교 과학 실험실 안전에 대한 5.6학년 학생들의 인식 조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남(2006). **초등학교 아동의 안전교육이 안전생활 실천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민(2011). **안전교육을 통한 국민안전의식제고 방안**.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2, 619-637.
- 이창희(2010).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진(2007). **초등학생 학교안전사고의 성별 위험행동특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효동(2011).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안전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효준(2006). **근로자의 안전의식 분석을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대성(2016). **산업위생분야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의식 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 : 국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 현(2003).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안전생활 실천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현주(2005). 초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과의 관계분석. 금오공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성초등학교(2015). 안전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보고서.
- 장경근(2011). 건설업 재래형 재해 예방을 위한 신규근로자 안전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 집(2011). 한국과 중국의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 비교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형규(2014). 조선산업의 산업재해와 근로자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 : 울산 S사 근로자의 안전의식 실태조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재완(2004). 초등학교 아동의 안전교육에 관한 인식. 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진만(2002). 건설 근로자의 산업안전 의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명애(2000). 학교 안전교육이 초등학생의 안전생활 실천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성훈(2012). 건설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제도 실효성평가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선(2010). 아동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화(2009). 함평지역 고등학생의 식품위생 및 안전의식 조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민 (2012). 초등학교 고학년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재환(2009).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및 안전교육과 산업재해의 인과 효과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석기(2015). 초중등학교의 안전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적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일(1998). 초등학교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2010). 소방안전 체험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2006). 중등학교 과학실험실에서 학생들의 안전의식도 조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산업안전공단(2001). 학교 교사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 한현상, 손기상(2011). 초등학교학생의 안전의식 실태분석 연구 : 6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한안전경영학회지, 13, 59-68.
- 홍석하(2015). 근로자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인센티브와 책임부과효과 비교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Florio, Alles. E.(1962). *Safety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Company.
- Heinrich H. W.(1980).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5th ed. New York: Mcgraw-Hill Company.
- Swell KH, Gaines SK(1993). *Developmental approach to childhood safety education*. Pediatric Nursing 19(5)

설 문 지

‘초등학생들의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 대연캠퍼스
자연과학대학2호관 7412호 스포츠과학연구소
corea@pukyong.ac.kr, 010-7258-8381, 051-817,7777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본 설문에 응해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평소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설문에서의 응답은 옳고 그름의 정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니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전공

지도교수 : 강승희 교수님

연구자 : 김선화

1. 다음은 학생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하세요.

- 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 2) 학년은?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 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다음 중 어떤 형태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 빌라 ④ 상가주택에 붙은 주택
- 4) 여러분은 학교를 오고갈 때 주로 어떻게 다닙니까?
① 걸어서 다닌다 ②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한다
③ 자전거로 다닌다. ④ 자가용으로 다닌다
- 5) 여러분의 형제 수는 몇 명입니까?
① 독자(외아들, 외동딸) ② 나 이외에 1명 더 있다.
③ 나 이외에 2명 더 있다 ④ 나 이외에 3명 더 있다.
- 6) 여러분의 학교에서 생활은 어떻습니까?
① 즐겁고 대체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다. ② 그저 그렇다.
③ 학교에 자주 가기 싫고 결석을 자주 하는 편이다.
- 7) 여러분은 학교에서 잘 어울리는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① 많은 편이다. ② 조금 있는 편이다.
③ 별로 없는 편이다. ④ 전혀 없는 편이다.
- 8) 여러분은 자신이 현재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하는 편이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 잘 못하는 편이다. ④ 아주 못하는 편이다.

7) 여러분이 학교에서 받은 1번의 안전교육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30분미만 ② 1시간미만 ③ 1 - 2시간 ④ 3 - 4시간
- ⑤ 5 - 6시간 ⑥ 기타 ()

8) 여러분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 ① 강의 형식 ② 시청각 매체 활용 ③ 토론 형식
- ④ 체험활동 형식 ⑤ 방문 견학(경찰서, 소방서 등)
- ⑥ 기타 ()

9) 여러분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후 주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 받았습니까?

- ① 평가 받은 적이 없다 ② 이론(시험) 평가 ③ 실기 평가
- ④ 이론(시험) 평가 및 실기 평가 ⑤ 기타 ()

10) 여러분은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1) 여러분이 위 10번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② 재미있어서
- ③ 안전지식을 알게 되어서 ④ 벌써 알고 있는 내용을 되풀이해서
- ⑤ 실제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⑥ 수업이 형식적이어서
- ⑦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⑧ 기타()

12) 여러분이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3. 다음은 안전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하세요

다음은 생활안전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복도에서 달려도 괜찮다.				
2. 책상이나 창틀 위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다.				
3. 유리창이나 방충망에 몸을 기대는 것은 위험하다.				
4. 선생님이 안전한 장비 사용에 대해 이야기 하시기 전에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약품은 직접 코에 대고 냄새를 맡지 않아야 한다.				
6.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장 상태가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7.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 뛰어서 2~3칸 씩 밟아도 된다.				
8. 그네, 미끄럼틀, 철봉 등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해야 한다.				
9. 장난감, 총, 칼 등을 가지고 놀 때에는 함부로 휘두르지 않아야 한다.				
10. 수영장에 들어갈 때는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				
11. 등산이나 캠핑 시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12. 등산 시 오르거나 내려올 때 길 중앙이나 안쪽으로 걷는다.				

13.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스키를 탈 때는 보호 장비 착용 및 안전요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14. 비 오는 날엔 전봇대나 전깃줄을 만지는 것은 위험하다.				
15. 전기플러그를 꽂거나 뺄 때는 전깃줄을 잡지 않고 반드시 플러그를 잡는다.				
16. 욕실, 화장실 등 매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매트를 사용해야 한다.				
17. 독성이 강한 가정용 화학제품은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다음은 응급처치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피가 날 때에는 깨끗한 거즈로 상처부위를 직접 눌러야 한다.				
2. 구급상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새것으로 바꾸고 부족한 것은 보충해 두어야 한다.				
3. 구급약품 상자는 습기가 없고 시원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4. 숨을 쉬지 않을 때는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				
5. 코피가 많이 날 때는 머리를 뒤로 젖히지 않고 앞으로 숙이는 것이 좋다.				

6. 위험을 당한 사람을 구조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119에 신고해야 한다.				
7. 119에 신고할 때에는 사고 시간과 장소, 다친 사람의 상태, 주위의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8.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먹을 것이나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9. 뜨거운 물이나 불에 덴 화상인 경우에는 흐르는 깨끗한 수돗물에서 먼저 식혀야 한다.				
10. 발목을 삐끗한 때는 통증과 붓는 것을 줄이기 위해 발을 높이고 얼음주머니로 찜질을 한다.				
11. 감전이 되었을 경우 환자를 만지지 말고 플러그를 뽑거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다음은 교통안전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길을 건너기 전에 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2.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때에는 좌우의 자동차를 확인하면서 건너가야 한다.				
3. 차의 바로 앞이나 뒤에서 길을 건너는 것은 위험하다.				

4. 차내에서 머리나 손을 내미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5. 차를 탈 때는 승객이 먼저 내린 후 차례로 타야 한다.				
6. 차를 기다릴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뒤로 물러서 차를 기다린다.				
7.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뒤쪽에 붙은 등이나 야광등이 있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안전하다.				
8. 자전거를 탈 때 비나 눈이 오면 바닥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무리하게 건너지 않는다.				
9. 눈이나 비가 올 때는 길이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으므로 차와 멀리 떨어져서 걷는 것이 안전하다.				
10. 길을 건널 때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도로의 왼쪽이나 길 가장자리를 걸어야 한다.				

다음은 재난안전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는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2. 평소에 소화기 사용 방법을 알아야 한다.				

3. 화재가 났을 때는 비상벨을 울려 주위에 알려야 한다.				
4. 학교의 각 교실에서 건물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길과 비상구의 표시를 익혀두어야 한다.				
5. 출입구의 손잡이가 뜨겁거나 연기가 스며 나오면 절대로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곳으로 대피한다.				
6. 화재가 나서 대피할 때는 몸을 낮추고 불길의 반대편으로 가야 한다.				
7.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사용해야 한다.				
8. 실험실 알코올 및 기름 화재가 났을 때는 모래 또는 이불 등 넓은 천으로 덮어서 끈다.				
9.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해야 하며, 어디서 불이 났는지, 현재 건물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4. 다음은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실천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하세요.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복도나 계단을 이용할 때는 뛰어 다니지 않는다.				
2. 책상이나 창틀에 올라서지 않는다.				

3. 약품은 직접 코에 대고 냄새를 맡지 않는다.				
4. 선생님의 장비사용 설명을 자세히 듣는다.				
5. 급식할 때 차례를 지킨다.				
6. 차 안에서 장난을 치거나 머리카락이나 손을 내밀지 않는다.				
7. 길을 건널 때는 급해도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로 건너거나 육교를 이용한다.				
8. 길을 갈 때는 인도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지 않는다.				
9. 자전거를 탈 때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 자리에서 탄다.				
10. 모든 운동 전에는 준비운동을 한다.				
11. 스키나 스케이트를 탈 때는 안전수칙을 꼭 지킨다.				
12. 건물 안에 들어갈 때는 비상구의 위치를 항상 확인한다.				
13. 화재 시 소화기가 있는 곳을 알고,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익힌다.				
14.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전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15. 전기플러그를 꽂거나 뽑을 때 전기 줄을 잡아당기지 않는다.				
16. 넘어져서 생긴 상처에 흙이 묻어 있으면 수돗물에 먼저 씻는다.				

17. 눈에 약품이나 먼지가 들어갔을 때는 손으로 만지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씻는다.				
18. 코피가 많이 날 때는 머리를 숙이고 코피가 멈출 때까지 코를 누른다.				
19. 집에서 구급상자는 정해진 장소에 두고 사용한다.				
20. 높은 곳의 물건을 다룰 때는 안전한 의자나 받침을 사용한다.				

* 여러분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